



## 사랑은 어려워

- \* 글: 박정애
- \* 그림: 김진화
- \* 출판사: 웅진주니어
- \* 정가: 8500원
- \* 분량: 92쪽
- \* 대상: 초등 3학년

### · 책 소개

『사랑은 어려워』는 『친구가 필요해』, 『사과는 맛있어』의 후속 권으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은애는 같은 반 친구 유성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유성이는 은애의 친구 지희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속이 상한 은애는 괜히 지희에게 심술부리고 짜증도 내면서 질투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짝사랑하는 남자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친구를 질투하기보다는 ‘당당한 조은애’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당당한 조은애’가 되기 위해 은애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짝사랑과 당당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은애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 · 주요 독후활동

사랑은 어려워	책 속으로	① 사랑의 시작 ② 갈등의 원인 ③ 나답게 사는 방법
	토론&논술	① 짝사랑, 고백하는 것이 좋을까? ② 추유성 엄마에게 편지 쓰기
	창의융합	① 책 소개하기 ② 이야기 극장 만들기



## 독서 전

국어 교과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책의 제목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때,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 (2~3) 책의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 심장이 왜 이리지?  
마음이 싱숭생숭, 심장이 쿵닥쿵닥.  
나 어떻게 됐나 봐. 마음이 자꾸만 미끄럼을 타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그냥 확 고백해 버릴까……?

2. 여러분도 ‘마음이 미끄럼을 타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써 보세요.

⇨

3. 붉은색으로 크게 쓰인 물음(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써 보세요.

⇨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 『사랑은 어려워』를 읽으면서 등장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내용을 찾고, 그 때 나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써보세요.

책의 내용	비슷한 나의 경험	당시 나의 심정
(예) 저희가 은애에게 매니큐어를 칠해주려고 하다가 은애가 화를 내서 둘이 싸우는 내용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인기 많은 단짝 친구를 질투해서 괜히 심술을 부렸던 적이 있다.	금세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독서 후 책 속으로 ① 사랑의 시작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추유성이 빙그레 웃었다. 추유성 얼굴 주변이 은행잎 같은 황금빛으로 환히 빛났다. 미끄럼틀 옆 은행나무에서 백만, 천 만 개도 넘는 은행 이파리들이 추유성을 따라 웃기 시작했다. 너무 눈부서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아 버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나 오지희 좋아해.” / 철퍼덕! 내 마음이 똥통으로 떨어졌다!

춤추던 은행잎들이 죄다 똥 덩어리로 바뀌었다. 사방에서 구린내가 코를 찔렀다.

“오지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같아.”

여신? 팔뚝에 닭살이 오스스 돋았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추유성 너, 지희 마녀 손톱에 된통 긁혀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다) “솔직히 난, 추유성 개 별로야. 알잖아. 난 슈퍼보이즈 자니 오빠만 사랑한다고. 자니 오빠, 진짜 진짜 좋아. 만약 자니 오빠가 내 눈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난 기절해 버릴 거야. 그럼 자니 오빠가 나를 일으켜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겠지. 그다음 뽀뽀를, 으악, 으아아아아…….”

지희가 저 혼자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비명을 질러댔다.

1. 은애, 유성, 지희가 각각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쓰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을 (가)~ (다)에서 찾아 써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표현 찾기
은애 →	
유성 →	
지희 →	

2.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들었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세요.

⇨

3. 지희는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할 때 좋은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써보세요.

⇨ 좋은 점:

걱정되는 점:



## 독서 후 책 속으로 ② 갈등의 원인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지희 손에만 들어가면 노란 하트 모양을 한 예쁜 잎사귀가 순식간에 망가졌다.  
 “넌 왜 쓸데없이 은행잎을 괴롭히고 그래?”  
 “괴롭히다니? 어차피 죽어서 떨어지는 잎이잖아.”  
 지희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성질이 났다. 그래서 아까부터 언제 할까 망설이던 말을 확 쏟아 버렸다.  
 “야, 추유성이 너 좋아한다더라.” <중략>  
 “그리고 나 좋아하는 애가 한둘이니? 문종수 개는 1학년 때부터 나만 쫓아다니잖아. 윤소영이 이민준 좋아하는 거 너도 알지? 근데 이민준은 나 좋아해”  
 (나) 지희가 내 손톱을 꾸며 주겠다고 초록색, 은색, 노란색 매니큐어를 가져왔다.  
 “은애야, 손톱 이리 줘 봐.”  
 “싫어.”  
 “왜 싫어? 얼마나 예쁘데.”  
 지희가 제멋대로 내 손을 붙들고는 왼손 둘째 손가락에다 초록색 매니큐어를 칠했다. 가운데 손가락에는 노란색을 칠했다.  
 “엄지에는 은색 발라줄게.”  
 지희가 은색 매니큐어 뚜껑을 열었다.  
 참으려고 했지만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싫어. 싫다고! 내 손톱이 네 거야? 왜 네 맘대로 아무 색깔이나 막 칠해?”  
 내 목소리가 무지 컸나 보다. 지희 눈이 휘둥그레졌다.

1. 은애가 지희에게 짜증을 낸 이유 두 가지를 파악하여 써보세요.

⇒

2. (나)에서 평소와 다른 은애의 모습을 보며 지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

3. 은애처럼 나도 친구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써보세요.

짜증을 낼 때의 상황	짜증이 난 이유	친구에게 사과 메시지 보내기



## 독서 후 책 속으로 ③ 나답게 사는 방법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가 아빠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다.  
 “응. 첫눈에 반했지. 근데 짝사랑이었어. 아빠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 친구를 좋아했거든.”  
 뭐야, 화살표가 어긋난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엄마아아아아, 빨리 얘기해줘.” <중략>  
 “남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니? 나는 그냥 나답게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씩씩하게 살았을 뿐이야.”  
 (나) “친구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네 엄마가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 엄마가 첫인상은 별로여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이잖니.”  
 아하 그렇구나.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머릿속 노트에 정리해 보았다.

남의 마음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됨. 내 마음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음 .  
 그러니까 조은애는 조은애답게 조은애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거임.  
 조은애는 조은애! 절대로, 절대로 구린 애 아님.

[조은애가 할 일] 1번. 많이많이 웃기 2번. 힘든 사람 도와주기 3번. 많이많이 놀기

1. 은애의 아빠가 대학생 시절에 은애의 엄마를 ㉠과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를 통해 짐작해서 써보세요.

⇒

2.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 후에 은애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서 써보세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3. 은애는 머릿속 노트에 조은애답게 열심히, 씩씩하게 살기 위해 할 일을 세 가지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답게 열심히, 씩씩하게 살기 위해 할 일을 세 가지 적어보세요.

( ) 답게 열심히, 씩씩하게 살기 위해 할 일	1. 2. 3.
----------------------------	----------------



### 독서 후 토론&논술 ① 짝사랑, 고백하는 것이 좋을까?

※ 다음은 은애의 이모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짝사랑하지만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모의 마음을 거절하면 서로 회사에서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고백을 하지 못하는 고민은 은애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글을 읽고, 이러한 상황에서 은애 이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혹시 이모, 누구 좋아하는 거야?”  
 “어머머머머머머, 은애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모 혼자서 좋아하는 거지?”  
 수화기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아마 이모는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있을 거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랄 것까지야. 혼자 좋아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둘이 좋아하면 싱숭생숭할 일이 뭐가 있어?  
 “맞지, 맞지? 이모 혼자 좋아하는 거지?”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어쩔, 누가 조은애 이모 아니랄까 봐. 한숨 쉬는 것까지 나랑 똑같아.  
 “이모, 이모는 어른이잖아. 어른이 뭘 그런 거 갖고 고민해? 그냥 확 고백해 버려. 그렇게 싱숭생숭한 것보단 조금 부끄러운 게 낫잖아.”  
 이모가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백을 어떻게 해? 사무실에서 바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확 고백했다가 그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 당장 그다음 날부터 회사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주제: 회사 동료를 짝사랑하는 은애 이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생각: 은애 이모는 짝사랑하는 회사 동료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 /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 독서 후 토론&논술 ② 추유성 엄마에게 편지 쓰기

※ 다음은 유성의 엄마가 자신의 집을 기웃거리리는 은애를 오해하고 은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니 너, 며칠 전에도 우리 집 기웃거리던 애구나? 애기나 좀 들어 보자. 왜 남의 집을 자꾸 엿보는 거야?”  
 추유성 엄마가 집게 손가락으로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나도 화가 났다.  
 “추유성하고 같은 반이란 말이에요. 추유성이 열나서 조퇴했잖아요. 걱정돼서 와 봤다고요.” <중략>  
 “그래, 조은애. 오늘은 그렇다 치고 지난번에는 왜 왔니?”  
 “그냥 지나가다가…….”  
 “너, 혹시 우리 유성이 좋아하니?”  
 혀. 입에 왕사탕을 문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추유성 엄마가 혀를 찼다.  
 “쯧쯧, 요즘은 여자애들이 더 난리라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남자에 집까지 찾아오는 건 좀 아니잖아? 여자애가 자존심도 없니? 그만 가봐. 다시 오지 말고.”

여러분이 은애 입장이 되어, 유성이 엄마에게 은애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어떤 말이 은애에게 상처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써주세요.

.....

.....

.....

.....

.....

.....

.....



## [예시답안과 가이드]

### ■ 독서 전

#### 1. (예시답안)

인물	서로 바라보는 곳이 다른 네 명의 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엇갈리는 짝사랑 이야기일 것이다.
배경	교실 책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급에서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 2. (예시답안)

- ① 수업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차분하게 발표하고 싶었지만, 긴장과 초조함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 ②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동생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화가 나기 때문이다.

### ■ 독서 중

#### (예시답안)

책의 내용	비슷한 나의 경험	당시 나의 심정
은애가 짝사랑하는 추유성이 은애의 친구인 지희를 좋아하는 내용	내가 짝사랑하는 남자아이가 우리 반의 다른 친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엔 많이 실망했지만 고백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유성의 엄마가 자기 집을 기웃거리는 은애를 혼내는 내용	결석한 단짝 친구를 위해 그날 공부한 내용이랑 알림 사항을 알려주려고 친구 집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쓸데없이 돌아다니한다고 혼냈다.	나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서 억울했다.
은애랑 싸운 지희가 은애에게 먼저 놀자고 문자를 보낸 내용	친구랑 작은 일로 싸운 뒤, 내가 먼저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화해를 했다.	친구랑 싸우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화해를 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 ■ 독서 후

## [예시답안과 가이드]

### ◎ 책 속으로 ① 사랑의 시작

#### 1. (예시답안)

좋아하는 사람	표현
은애 → 추유성	추유성 얼굴 주변이 은행잎 같은 황금빛으로 환히 빛났다.
유성 → 오지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같아
지희 → 자니 오빠	내 눈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난 기절해 버릴 거야.

2. (예시답안)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사람만 보인다.

#### 3. (예시답안)

- 좋은 점: 내 주변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걱정되는 점: 그 사람만 너무 생각하면, 현실에서 내가 만나고 생활해야 하는 친구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 ◎ 책 속으로 ② 갈등의 원인

1. (예시답안) 자기가 좋아하는 추유성이 지희를 좋아해서 질투가 났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데도 지희가 자기 마음대로 칠해서
2. (예시답안) 생각지 못한 일로 크게 화를 내어 당황했을 것이다.
3. 답안 생략.

### ◎ 책 속으로 ③ 나답게 사는 방법

1. (예시답안) 엄마가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점점 더 좋아졌다.
2. (예시답안)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	짝사랑하는 추유성을 신경 쓰고 지희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지고 수업에도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이 해야 할 공부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것이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3. 답안 생략.

◎ 토론&논술 ① 짝사랑, 고백해도 될까?

(가이드)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 중에서 한 가지로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도록 합니다.

(예시답안1)

은애의 이모는 짝사랑하는 회사 동료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같은 사무실 사람을 짝사랑하면 어떻게든 그 마음은 티가 날 수 있다. 그러면 고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더 어색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또 짝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은애의 이모는 직장 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을 고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시답안2)

은애의 이모는 짝사랑하는 회사 동료에게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은애의 이모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은애 이모가 고백을 하면 상대방은 직장 생활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은애 이모와 상대방은 어색한 사이가 되고 일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토론&논술 ② 추유성 엄마에게 편지 쓰기

(가이드) 기본적으로 편지 형식에 맞게 쓰도록 합니다.

→ 받는 이/ 인사/ 안부/ 전할 내용/ 마무리 인사/ 날짜/ 보내는 이

(예시답안)

[예시답안과 가이드]

추유성 엄마께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애입니다.

처음엔 아줌마가 유성이 집을 엿본다고 하셨을 때 당황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조퇴한 유성이가 걱정돼서 봐왔거든요. 유성은 지금 열이 나서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유성이가 좋아하는 여자가 유성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도 아프거든요.

물론 제가 유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유성을 집까지 쫓아다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자존심도 없이 집에 찾아왔다는 말 때문에 저는 속상했어요. 단지 저는 유성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유성을 위로해주려고 왔던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20년 0월 0일  
조은애 올림

◎ 창의융합 ① 책 소개하기

답안 생략.

◎ 창의융합 ② 이야기 극장 만들기

1.(예시답안) 은애와 지희가 싸우는 장면

2. (예시답안)

등장인물	표정, 몸짓, 말투
은애	지희가 메니큐어를 바를 때 짜증스러운 표정 손을 잡아 빼는 행동 큰 목소리와 화가 난 말투
지희	은애에게 메니큐어를 바르면서 즐거워하는 표정 은애가 손을 잡아 빼면서 소리를 지를 때 놀라는 표정 당황한 목소리

3. (예시답안)

## [예시답안과 가이드]

지희: (웃으면서) 은애야, 손톱 이리 줘 봐.

은애: (심술 난 표정으로) 싫어.

지희: 왜 싫어? 얼마나 예쁜데.

(은애의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엄지에는 은색 발라줄게.

은애: (손을 헉 잡아 빼며) 싫어 싫다고! 내 손톱이 네 거야?

왜 네 맘대로 아무 색깔이나 막 칠해?

지희: (눈을 동그랗게 뜨고) …….

지희는 손바닥에 묻은 매니큐어를 닦는다.